
 금융위원회		<div>보도참고자료</div>				 금융감독원	
	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19.4.24.(수)		
책 임 자	금융위 보험과장 하 주 식(02-2100-2960)			담 당 자	이 정 찬 사무관 (02-2100-2972)		
	금감원 보험감독국장 이 창 욱(02-3145-7460)				한 창 훈 팀장 (02-3145-7466)		

제 목 : 자동차 보험료 인상 여부·규모 및 시기는 아직  
결정된 바 없습니다.  
[한국경제 4.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]

## 1. 기사 내용

- 한국경제는 4.23일자 「자동차 보험료 내달 또 오른다」 제하 기사에서
  - “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2% 인상된다”.....“금감원은 근로자의 노동가동연한을 늘리고 사고차량의 중고가격 하락분 보상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작업을 이번주에 마무리할 계획이고,”
  - “당초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상에 부정적이었던 금감원도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.” 라고 보도

## 2. 참고 내용

- 자동차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나
  -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선행하여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

- 아울러, 최근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요인 뿐 아니라 인하요인\*도 있어 실제 보험료 인상여부와 수준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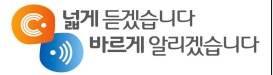
\* 자동차보험 경미한 손상 시 부품 교체비용 대신 복원수리비 지급 대상을 현행 범퍼에서 7개 외장부품(도어, 펜더, 후드, 트렁크리드 등)으로 확대 예정

- 또한, 실제 보험료 인상 수준이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1.5~2% 수준의 인상이 결정된 것으로 보도하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 
[prfsc@korea.kr](mailto:prfsc@korea.kr)

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**